



크로즈 · 업

## 全羅北道 保社局長 陸 鍾 振씨

◎...전라북도 保社 행정의 총사령탑인 道 보건사회국장 陸鍾振씨  
전북도민을 위한 保社 행정을 총괄하기에 한치의 여가도 없는 일과에서  
陸局長은 온화하고 따뜻한 얼굴로 우리 南相度 국장 등 一行을 반가히 맞  
는다.

◎...「全北道の 특색있는 자랑거리 사업이라면 도민건강진단사업을 들  
수 있지요. 81년도부터 시작한 이 사업은 도민을 대상으로 X-Ray 체크  
등 일반질환발견에 주력하고 있어요. 사실 말이지만 건강관리협회가 해야  
할 사업을 우리 道가 먼저 시작한 셈이지요. 나라에서 해야 할 사업을 미  
리 착수했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아마 健協은 우리에게 감



사해야 될 것입니다. 하하—。」

소탈하게 웃으면서 全北의 보사행정을 자랑하는 陸국장의 모습에서는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성실한 자세가 엿보여서 그의 인간미를 한껏 돋보이게 한다.

◎…3개년 계획으로 작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매년 10 만명을 목표로 해서 시작했는데 주된 대상으로는 의료혜택을 못받는 주민이라던가 노년층, 장애인층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하며 225 만 도민 중에서 29 만 4천을 목표량으로 삼고 있다고 한다.

권장사업으로는 체능검사, 결핵, 성병, 기생충, 당뇨, 고혈압 등을 체크하는데 면단위까지 나아가 이동진단을 실시한다고 한다. 금년에도 6월말까지 6 만명을 진료 검사하여 유병자 8,180 명을 발견, 18.8%의 좋은 실적을 거양했다고 말씀하기도 한다.

◎…「환자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고요? 사실 말이지만 농촌에서 병원을 가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위급한 경우를 빼놓고 말입니다.

그리하여 농민들은 건강상태를 체크하는데 우선 의의를 느끼고 서로 상담하는데도 의의를 느낍니다. 또한 이상자가 발견되면 어떻게 치료 받아야 하는 것과 어느 병원에 가서 치료 받아야 하는 것을 안내합니다.

벌써 결핵, 성병 등 947 명을 보건소에 등록 치료케 해서 주민건강을 돌보고 있지요—。」

◎…힘주어 역설하는 陸局長의 모습에서 어떤 신념같은 것이 엿보여 기자 일행은 흐뭇한 마음까지 느끼게 한다.



「—도민건강진단 사업은 우리 도지사님께서 착안하신 사업이지만 성공을 거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중앙에서 他 市道에서 권장사업으로 지시하여 이런 사업이 확대 실시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健協과 공동사업으로 추진하여 정착화되도록 노력할생각입니다.」

◎... 柳英俊 보건과장은 기자에게 이렇게 귀뜸해준다.

「—여기서 만성질환자를 발견하면 보건소에서 1次투약을 실시하고 병·의원에 진료를 안내하면 진료비의 50% 디스카운트를 해주는 특전도 베풀고 있지요. 이런면에서 주민

들은 고맙게 생각하고 유명상태가 현상유지만 되어도 만족하는 것 같아요.」

◎...全北道の 기생충 관리는 말할 것도 없이 잘 되어 몇년전 주민검변 사업도 전북에서 먼저 시작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고 자랑하면서 審協직원들의 의욕이 대단하여 81년도에는 일반주민 목표량 45萬명을 책정하여 100% 달성했다고 기쁨을 토한다.

또한 행정지원, 보조요원, 새마을 부녀회원들이 음으로 양으로 도웁고 있어 목표량은 무난히 달성되겠지만 일반주민사업은 배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앞으로 지금 실시중에 있는 3개년 사업을 전협에 위임해서 力點사업으로 키워나가겠다는 陸局長은 전북의 보사정책은 전도가 양양하기만 하다고 포부가 대단했다.

◎...全北道 공무원교육원장, 扶安군수, 長水군수, 益山군수, 내무부 지방세담당관을 거쳐 현직에 부임했다. 취미는 테니스. 부인 金苗技여사와의 사이에 2男3女.